

# Legal Times

www.legaltimes.co.kr

2022 09

## LEADING LAWYERS 2022



9 771976 488000 09

ABC  
www.abc.or.kr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리걸타임즈



## 일 러 두 기

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한국 로펌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문변호사 층도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증권·금융, 건설·부동산, 국제중재, 보험, 해상, 송무, IP, TMT 등 12개 분야에 걸쳐 ‘2022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2)’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잡지 전 지면을 할애해 단행본 형식의 ‘기업변호사 디렉토리(Directory)’로 꾸렸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해 함께 소개한다.

## Corporate and M&amp;A

기업법무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M&A와 회사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로펌마다 쟁쟁한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대목 중 하나는 스타트업 자문 등에 특화된 M&A 부티크, 중소 로펌에서 활동하는 M&A 전문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매체에서 집계하는 거래건수 기준 M&A 리그테이블에서도 M&A 부티크 여러 곳이 대형 로펌들과 함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중소 로펌’ M&amp;A 전문가 증가

공대 출신으로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변호사, 회사법 전문성에 여성의 섬세함을 더한 자문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 로펌 고우의 고운기 변호사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M&A 거래에서 활약이 크다.

KL 파트너스의 이성훈, 김선호 변호사, LAB 파트너스의 김영주, 김광복 변호사, 위어드바이즈의 김남훈 변호사도 다양한 거래에 나서는 M&A와 회사법 전문가들이며, 법무법인 리앤 파트너스의 이승재 변호사도 M&A와 부동산 거래, 기업이나 기업인이 관련된 민형사 분쟁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법무법인 기현의 이현철 변호사도

김엔장 시절부터 이름을 날린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의 전문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같은 김엔장 출신인 법무법인 이제의 유정훈 변호사도 기업금융과 함께 다양한 회사법 사안에 대해 자문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견 로펌의 변호사 중에선 법무법인 KCL의 박우호, 이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의 안식 변호사와 변호사가 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김준오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변호사 등이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 주주행동주의 자문과 함께 외국 투자자들 대리도 외국 자본의 한국투자 유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장리의 최영익 변호사와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유치와 한국 법인의 해외합작법인 설립 등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임석진 외국변호사가 특유의 전문성으로 여러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받는 오랜 경력의 회사법 변호사들이다.

## 대형 로펌 M&amp;A팀 갈수록 세분화

물론 김엔장,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엔 M&A 군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기수별로 많은 전문가들이 진용을 이루고 있다. 업무분야도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M&A 거래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엔장은 박종구, 이경운, 김진오, 박종현, 권

형수, 조현덕, 이영민, 권윤구, 김지평, 김완석, 강은주, 김태오 변호사가 먼저 소개되는 전문가들이다. 권형수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쪽에서도 활약이 크며, 조현덕 변호사는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관련 업무에서 명성이 높다. 공정거래 자문에도 높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김진오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과 적시의 세련된 자문으로 클라이언트를 항상 업데이트된 상태로 보좌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평을 듣는다.

리그테이블에서 김엔장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법무법인 광장은 김상곤, 이형근, 김현태, 문호준, 민세동, 윤용준 변호사에 이어 구대훈, 김경천, 이승환, 김성민 변호사 등 광장 표현에 따르면, 광장의 4세대 변호사들이 전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광장 M&A팀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로, 광장은 세대교체와 함께 광장이 전통적으로 강한 대기업 고객군에 이어 사모펀드와 스타트업 시장으로 자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세대교체 빠르게 진전

광장 M&A팀의 4인방으로 불리는 구대훈, 김경천, 이승환, 김성민 변호사에 이어 사법연수원 39기의 박경균 변호사도 광장 PE팀의 주축으로 활약이 돋보인다.

법무법인 세종은 UC 버클리 증권법 박사인 송창현 변호사부터 김병태, 이동진, 장재영, 강지원, 정혜성, 이수균, 조중일 변호사까지, 법무법인 율촌은 은성욱, 김기영, 이진국, 박재현 변호



사, 보험 분야에서도 활약이 큰 신현화 변호사와 황규상, 김준형, 이수연 변호사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막강하다. 율촌의 김기영 변호사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밝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준기, 윤성조, 강한, 김목홍, 조성민, 이오령, 김방현, 오명석, 장호경, 정운형 변호사와 김경석 외국변호사가 M&A 자문에서 유명하다. 윤성조 변호사는 법률 외에도 재무와 회계, 세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강점으로 얘기되며, 최근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M&A 거래를 많이 수행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와 함께 금융에도 밝은 강영호 변호사, 김상만, 운영균, 김지욱, 박기만, 김가영, 강혜림, 이정환 변호사 등의 맹장들이 포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신민, 정철, 이태현 변호사의 트리오가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강지원 변호사/세종=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쉐리, 라엘코리아, 레진/키다리 등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투자를 성사시키고,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PE, NH PE 등 국내 PE의 다양한 포르폴



리오 회사에 대한 주요 지분 투자에 자문했다. Genome Insight의 해외로의 본사 이전(Delaware Flip) 거래도 그녀의 손을 거쳐 성사됐다.

◇강한 변호사/태평양=GS건설의 스페인 이너마 인수, 한화솔루션의 프랑스 RES Mediterranee SAS 인수 거래를 지휘한 태평양 M&A 팀의 리더 중 한 명으로, 보통 외국 로펌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웃바운드 M&A 딜에서 한국 로펌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RES프랑



스 인수는 지분 100%를 7억 2,700만 유로(약 1조원)에 인수한 그룹사 최초의 재생에너지 분야 조 단위 M&A로, 강 변호사 팀에선 인수인 측을 대리해 주식매매와 관련된 주요 거래조건 검토 및 협상, 해외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인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사항 검토, 신고대행 등을 수행했다.

CJ제일제당의 브라질 식품회사 셀렉타 인수, 한화솔라에너지의 독일 큐셀 인수 거래도 강 변호사가 자문한 주요 M&A 거래들이다.

◇강혜미 변호사/별=스타트업과 M&A 자문에 특화된 여성변호사

Corporate and M&A		
박우호	KCL	사시 40회
이석현	KCL	사시 42회
이성훈	KL파트너스	사시 39회
김선호	KL파트너스	사시 45회
김광복	LAB 파트너스	사시 44회
김영주	LAB 파트너스	사시 45회
고윤기	고우	사시 49회
김상곤	광장	사시 33회
이형근	광장	사시 33회
김현태	광장	사시 37회
문호준	광장	사시 37회
민세동	광장	사시 38회
윤용준	광장	사시 41회
구대훈	광장	사시 45회
김경천	광장	사시 45회
이승환	광장	사시 46회
김성민	광장	사시 46회
박경균	광장	사시 49회
이현철	기현	사시 30회
박종구	김앤장	사시 27회
이경윤	김앤장	사시 34회
김진오	김앤장	사시 36회
박종현	김앤장	사시 37회
권형수	김앤장	사시 39회
권윤구	김앤장	사시 40회
조현덕	김앤장	사시 43회
이영민	김앤장	사시 43회
김지평	김앤장	사시 43회
김완석	김앤장	사시 45회
강은주	김앤장	사시 46회
김태오	김앤장	사시 48회
최영익	김장리	사시 27회
임석진	김장리	외국변호사
조원희	디라이트	사시 40회
이승재	리앤파트너스	사시 50회
강혜미	별	사시 48회
최성호	비트	사시 50회
정호석	세움	사시 46회
송창현	세종	사시 36회
김병태	세종	사시 36회
이동건	세종	사시 39회
장재영	세종	사시 39회
강지원	세종	사시 43회
정혜성	세종	사시 45회
이수균	세종	사시 46회
조종일	세종	사시 46회
김남훈	위어드바이즈	사시 48회
은성욱	율촌	사시 36회
김기영	율촌	사시 37회



**‘영문 M&A 용어정리’ 블로그 인기**

리걸 리스크를 단순히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리스크의 관리 방안이나 더 나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고객과 상의하는 자문 스타일로 인해 IB를 겸한 변호사와 같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는 전인 구 변호사가 Sullivan & Cromwell 뉴욕사무소에서 visiting lawyer로 파견근무하던 시절 시작해 8년째 운영되고 있는 ‘구대훈 변호사의 영문 M&A 용어정리’ 블로그는 구독자가 3천명이 넘고 누적 조회수가 70만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가영 변호사/화우=화우** M&A팀의 차세대 대표주자인 김가영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락이 잘 되고 친절함 응대로 고객의 높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대원그린에너지와 새한환경 인수 거래 및 탐선 전환사채 인수 거래, 엔캠의 신주 및 BW 발행 거래, 케이스톤파트너스에 대한 역전할머니 매각 거래, 프리미어파트너스 및 보라티알의 메가커피 인수 거래, 앵커 PE에 대한 메타넷애플랫폼 매각 거래, 한화생명의 물적분할 거래 등이 김 변호사가 최근 수행한 주요 딜로 소개된다.



**◇김경천 변호사/광장=인수,** 매각, 합작투자 등 전형적인 M&A 거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합병, 분할, 주식교환,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구조조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제일모직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근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물적분할 (LG에너지솔루션 설립)도 김경천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건이며, 최근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한화그룹의 사업재편 거래 중 한화임팩트의 한화과위시스템 인수에도 관여했다.

**◇김광복 변호사/LAB 파트너스=M&A,** 그중에서도 사모펀드가 관련된 거래에 많이 나서는 펀드 전문가로, 법무법인 세종 근무 시절 외국 로펌 연수도 영국의 사모펀드 전문 로펌인 Travers Smith에서 경험을 쌓았다.

**훗 사모펀드 로펌에서 경험 쌓아**

올 들어서도 7월까지 IBK-BNW인 베스트먼트 PEF의 레뷰코퍼레이션 매각 자문, 제이씨지아이파트너스 및 메리츠증권의 티빙 투자 자문, IDG Capital Korea · 한국투자파트너스 · 디에스자산운용의 두산모빌리티노



베이션 투자 자문 등 여러 의미 있는 M&A 거래를 수행했다. 김 변호사가 자문하는 펀드에는 사모펀드 외에도 Hedge Fund,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 여러 형태의 펀드가 있으며, 물론 국내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자들의 투자와 합병, 분할 등 사업재편 거래도 활발하게 자문한다.

**◇김선호 변호사/KL 파트너스=KL** 파트너스에 합류하기 전 대형 로펌과 스타트업 전문 부티크에서 회사법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한 김선호 변호사는 이성훈 변호사에 이어 KL 파트너스에서 두 번째로 많이 M&A 거래에 자문하는 변호사로 얘기된다. 변호사 경력 14년째인 그는 수년 전 바이아웃 M&A 집계 결과 10년차 이하 변호사 중 성사 금액 기준 2위, 성사 건수 기준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화 배급사 쇼박스를 대리한 쇼박스의 투자유치, GS건설 및 자이에스앤디를 대리한 에스앤아이건설 주식 인



수 거래가 올 상반기 그가 자문한 주요 거래로 소개된다.

◇**김성진 변호사/화우**=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에 이어 한진칼의 진에어 매각 거래 등 항공산업 재편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화우 M&A 팀의 리더로, IMM PE에 대한 국내 가구 인테리어 1위 업체 한샘 매각, SK에코플랜트의 대원그린에너지와 새한환경, 탑선



인수 거래도 자문했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내놓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김영주 변호사/LAB 파트너스**=M&A 리그테이블 '톱 10'의 실적을 견인하는 LAB 파트너스의 코퍼릿 파트너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세종 금융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 기업금융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사모펀드의 설립부터 M&A, 인수금융 등 M&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사모펀드를 상대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상반기 MBK파트너스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규모 8,000억원의 동진섬유, 경진섬유 매각 건에서 매도인들을 대리하였고, 오케스트라PE를 대



리하여 마제스티골프코리아 매각 건을 성공리에 종결했다. 또 국내 펀드의 미국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투자, 국내 기업의 미국 골프장 투자 등 아웃바운드 M&A와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수행한다.

◇**김완석 변호사/김앤장**=김완석 변호사는 국내 최초인 한앤컴퍼니 포트폴리오 회사 쌍용C&E의 컨티뉴에이션펀드 거래, CVC의 포트폴리오 회사인 여기어때의 온라인투어 인수 및 미래에셋으로부터 투자 유치, Affinity · Permira · GS리테일 컨소시엄을 대리한 요기요 경영권 지분 인수 거래 자문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는 난이도 높은 M&A 거래에 자주 이름이 나온다. 창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

김 변호사는 PEF를 대리하면서 상대방으로 만났던 대기업에서도 인정을 받아 사건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



다고 한다. 올 상반기 진행된 코오롱글로벌의 자회사 합병, 자동차 사업부 인적분할 및 재상장 거래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지욱 변호사/화우**=복잡한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 규제, 외국환거래 등의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평을 듣는 김지욱 변호사는 올 상반기 글로벌 골프용품 제조사인 테일러메이드를 대리하여 국내 골프용품 기업의 지분 및 경영권 인수 거래와 피인수기업의 조직 변경, 인수 후 통합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포스코가 참여한 국내 PEF가 ArcelorMittal Mines Canada의 캐나다 광산과 관련 개발 시설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는 딜을 수행했다.



또 국내 플랜트 전문 대기업이 보일러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를 매각하는 딜에서 매도인 측에 자문하고, 2020년, 2021년엔 대한항공, 제주항공이 실시한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자문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화우에 합류하기 전 네이버 사내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한국도로공사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도 맡고 있다.